조소앙의 아나키즘 수용과 반제 아시아 연대활동

김 명 섭*

국문초록

1904년 10월 일본 도쿄로 유학길에 오른 조소앙은 반전운동이 고조되고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강제퇴위당한 1907년 기점으로 문명국가로의 일본관을 바꾸게 되었다. 세계 인권문제와 반전 평화운동에 관심을 갖게된 조소앙은 처음 아나키즘 서적을 구입해 탐독한 후 일본 사회주의자와 중국 유학생 강연회 등에 참석하며 아시아연대활동에 참여했다.

조소앙의 반일 아시아 연대활동은 1907년 일본 도쿄에서 조직된 최초의 아시아 반제동맹인 아주화친회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아주화친회 조직에 앞장선 고토쿠 슈스이와 오스기 사카 등 일본 아나키스트들과 중국의 혁명가 장지·류스페이, 그리고 베트남의 혁명가 판보이찌우 등의 회고에서 그가 조선혁명당의 한사람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침략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아시아인’을 회원으로 한 아주화친회(또는 동아협회)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발표하는 등 반제 아시아 연대활동을 펼쳤지만, 5개월만에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이후 고토쿠 슈스이가 ‘대역사건’의 희생양이 되며 일본 사회운동이 침체에 빠졌고, 조소앙은 강제합병과 경찰 감시로 우울과 병든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912년 7월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조소앙은 중국혁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혁명가들의 항일 지원을 받기 위해 귀국한지 1년 만에 중국으로 망명했다. 일본 유학 동문이자 아나키스트 동지로서 중국 국민당의 핵심인물이 된 다이저타오와 황찌에민 등은 조소앙의 모든 활동에 몰심양면으로 도왔다. 이들은 신아동계사는 물론 ‘아세아민족 반일 대동당’ 조직에도 발기인으로 나섰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할 때에도 적극 도왔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임시헌법을 기초하는 등 크게 기여한 조소앙은 한국독립의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해 5월부터 1921년 5월까지 유럽과 소련 여러 지역을 순방하였다. 유럽 방문 동안 그는 한국사회당의 대표 자격으로 국제사회당 대회에 참석해 정부 승인과 독립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 각국 인사에게 독립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어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대회를 참관한 그는 러시아의 실상을 목격한 후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언문 발표하였다.

공산주의에 비판적인 조소앙은 중국 동지들의 지원을 받아 ‘한살입’이라는 아나키즘 성향의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한살입’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동지들과 함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 타도와 인류대동사회 건설’을 지향하였다. 이 단체는 독립전쟁의 수행을 위해 무력투쟁도 감수하는 혁명단체를 지향했다.

이처럼 1920년대에 조소앙은 중국 아나키스트들과의 협력과 비밀결사로 아나키즘적 대동사회를 구현하고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 hak6278@hanmail.net

자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어 조소앙은 서구 아나키즘의 조류인 '무국가·무정부주의'를 비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의 건설은 또 다른 강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자는 것이며, 또 다른 강도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라는 자율적 통치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조소앙의 이러한 논리는 아나키스트가 봉건왕국과 제국주의와 같은 타율정부(他律政府)를 배격할 뿐 민중에 의해 이끌어지는 자율정부(自律政府)를 배격하는 자가 아니라는 류자명·유림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들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3.1혁명에서 태어난 전 민족의 자율적 기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가 청년시절부터 꿈꿨던 대동적 이상사회를 실현할 새로운 통치기관이기에 이론과 실천과제의 체계화에 힘썼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주제어] 조소앙, 아나키즘, 한살림당, 동유약초, 사회당, 아시아연대

— | 목 차 | —

I. 머리말	Ⅲ. 중국 망명기 한살림 조직과 반제 아시아 연대활동
Ⅱ. 일본 유학기 아주화친회 참여와 지적 교류	Ⅳ. 맺음말

I. 머리말

조소앙(趙素昂, 1887~1958)은 한국 근현대 민족운동사에서 독립운동 지도이념인 삼균주의를 체계화시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건국강령을 기초한 사상가이며 민족지도자이다.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 상의 균등이 실현된 완전한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개인과 개인·국가와 국가·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균등의 원리가 적용된 평화로운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다. 조소앙이 창안한 삼균주의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대안이념으로 고안된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구상되었고, 이론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며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삼균주의는 조소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초기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연합을 위한 통일된 이론 정립의 필요성에 의해 창안하였다. '삼균주의의 배태기'에 해당하는 1900~1920년대 전반기 조소앙의 사상 형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일본 유학생이던 청년 조소앙의 8년간 일기인 『東遊略抄』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진 삼균학회의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¹⁾ 이를 통해 일본 유학과 중국 망명 초기, 유럽 순방 시기 등 청년시절 만난 일본·중국 및 서구 지식인과의 지적 교류와 연대활동

1) 조소앙의 삼균주의 창안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는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지영사, 2003;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황호덕, 「근대 동아시아의 文體·身體·政體, 조소앙의 『동유약초』의 경우-일본 유학, 망국, 중국 망명의 지적·문체적 여정」, 『서강인문논총』 4, 2015;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역사공간, 2016 등을 참조.

경험이 사상 형성과 이론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 그가 만나고 수용했던 사회주의, 특히 아나키즘 사상과 아나키스트 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지만 본격적인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 특히 1907년 일본 도쿄에서 조직된 최초의 아시아 반제동맹인 亞洲和親會에 조소앙이 참여했음을 알려주는 베트남의 혁명가 판보이쩌우(潘佩珠)의 자서전이 국내 학계에 소개되어 재조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²⁾ 이를 통해 일본 도쿄의 이주화친회에 이어 중국 망명 후 중국 혁명가들의 후원 아래 결성된 大同黨, 上海에서 조직한 韓薩任黨 등의 사상적 연원과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³⁾ 이에 본고에서는 조소앙이 일본과 중국의 어떤 혁명가들의 지적 영향을 받거나 직접 만나 교류했으며 수용한 사회주의, 특히 아나키즘 사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상을 꿈꾸고 조직하려 했으며 어떻게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삼균주의로 변화·발전시켜 나아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일본 유학기 지적교류와 이주화친회 활동

성균관 유생이던 조소앙이 인천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 유학길에 오른 때는 18세가 되던 1904년 10월 9일이다. 종숙 조원규의 인솔 하에 도쿄에 도착한 조소앙과 崔麟·崔南善 등 46명의 황실 특과 유학생들은 그해 11월 5일 東京府立第一中學校에 입학하였다.

국가주의 교육 신봉자인 교장의 군대식 교육에 시달렸던 조소앙과 한국 유학생들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에 비판에 빠진 외중에 12월 한국인을 무시하는 교장의 발언에 알려지자, 이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벌였다.⁴⁾ 이 일로 전원 퇴학 처분을 받은 한국학생 37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조소앙은 1906년 3월 재입학하여 1907년 3월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조소앙은 1907년 11월 세이소쿠(正則)영어학교를 거쳐 이듬해인 1908년 3월 메이지(明治)대학 고등예과에 입학해 1909년 7월 과정을 마친 후 9월 13일 법학부 본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일본 근대 학교교육과 수학여행 체험 등을 통해 한국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문명국가’로 봤던 조소앙은 그러나 1907년경부터 일본관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우선 東京府立第一中學校를 졸업함에 따라 군국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본 사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졸업식을 며칠 앞

2) 潘佩珠, 『판보이쩌우자서전·자료집』, 성균관대출판부, 2015; 황호덕, 「근대한문, 東亞同盟과 혁명의 문자 - 『판보이쩌우자서전(潘佩珠年表)』으로 본 아시아혁명의 원천들」, 『대동문화연구』 104, 2018.

3) 조소앙의 사회주의 수용문제에 대해 주목한 연구로는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교류와 연대』, 창비, 2001; 李京錫, 「平民社における階級と民族—亞洲和親會との關聯を中心に」, 『帝國を撃て』, 東京: 論創社, 2005; 김명섭,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이학사, 2008; 사사 미즈아키, 「조소앙의 대동사상과 아나키즘-육성교의 구상과 한 살임의 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40, 2016; 김경남, 「1910년대 재일 한·중 유학생의 비밀결사활동과 '민족혁명' 기획」, 『지역과역사』 45, 2019; 김기승, 「조소앙과 『적자보』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 2020; 김기승, 「조소앙의 사회주의 수용과 공화주의 국가구상」(김현철 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조명2』, 동북아역사재단, 2020) 등을 참조.

4) 『동유약초』 1905년 11월 24일; 12월 5일조(삼균학회 편, 『素昂先生文集』 上·下, 햇빛사, 1979).

둔 3월 28일 와세다(早稻田)대학에서 열린 일본 학생들의 한국 황실에 대한 토론회는 그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황제를 일본 황실 아래 신분인 華族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크게 분개해 항의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자세히 일기에 기록한 조소앙은 3월 31일 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⁵⁾

또한 조소앙은 그해 7월 고종 황제의 헤이그 밀사파견에 대해 일본 신문에서 한국인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크게 분개하였다. 일본 호우치(報知)신문은 나아가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항위를 폐위할 뜻을 갖고 있다는 허위기사까지 게재하였다. 이에 재일본 한국 유학생들은 헤이그 평화회의에 찬동한다는 뜻을 담은 3건의 선언서를 본국 사회와 세계 각국에 알리기로 했는데, 그중 2건은 조소앙이 기초한 문건을 채택하였다.⁶⁾

조소앙은 당시의 심경을 본국 동포에게 전하기 위해 ‘在日本 嘗膽生’ 명의로 『痛哭告于本國同胞』를 작성해 7월 29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일본의 한국 침략이 첫 번째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일협약을 체결한 것, 두 번째 러일전쟁을 일으켜 보호국화한 것, 세 번째는 고종황제를 강제 폐위시켜 한일신협약을 체결하는 것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에 체결한 한국신협약의 문구는 역시 ‘평범 온화’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병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⁷⁾

이처럼 조소앙의 일본관은 1907년을 기점으로 이상적인 ‘근대 문명국’에서 ‘배신’과 ‘음흉’, ‘강제’, ‘불법’ 등 비판적 극복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 무렵 조소앙은 세계 인권문제와 평화운동, 나아가 아나키즘⁸⁾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가 구입한 책인 『無政府主義』⁹⁾와 『天賦人權論』, 그리고 번역한 『政治講要』 등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¹⁰⁾ 일본에 아나키즘 사상이 소개된 시점은 1902년 당시 도쿄제국대학 철학과에 재학 중이던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가 쓴 『近代無政府主義』라는 책이 간행되면서부터이다. 이 책은 러시아 차르 정권 치하의 나로드니키와 虛無黨 당원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1906년 철학자 구즈미 겐손(久津見厥村)이 『無政府主義』라는 책을 平民書房에서 발행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공자와 석가에게서 무소유적 아나키즘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과 막스 슈티르너(Max Stirner), 그리고 크로포트킨(Pyotr Alekseevich Kropotkin)과 칼 맑스(Karl Marx) 등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자세히 소개하였다.¹¹⁾ 조소앙이 누구의 책을 구입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¹²⁾ 아나키즘에 관심을 보인

5) 『동유약초』 1907년 3월 28일; 3월 30일; 3월 31일조.

6) 『동유약초』 1907년 7월 17일; 7월 18일; 7월 26일조.

7) 기고한 글의 원문은 「동유약초」 1907년 7월 29일조에 실려 있지만, 신문에 실제 실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아나키즘(anarchism)의 어원은 애초 그리스어인 ‘anarchos’이다. 이는 ‘an(없다)’과 ‘arche(지배자)’의 합성어로 ‘지배자가 없다’라는 뜻이다(조지 우드코크(지), 하기락(역), 『아나키즘-사상』, 형설출판사, 1975, 12쪽). 이 말은 ‘기잡이 없는 선원’(또는 ‘선장 없는 배’)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권력이나 정부가 없는 사회의 건설을 의미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무정부주의란 신조어가 생긴 이후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이 용어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오역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반강권주의’로 바꾸려 하였다. 하지만 천황제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일본 집권자들은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파괴와 암살, 혼란의 선동자로 규정하기 위해 ‘무정부주의자’라는 용어를 고집하였다.

9) 『동유약초』 1907년 2월 2일조.

10) 『동유약초』 1907년 10월 4일; 10월 8일조.

11) 『근대무정부주의』와 『무정부주의』 두 책을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중국·한국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번역하게 되었다. 이 용어는 불행히도 일본 지배 권력자들에 의해 파괴와 암살, 혼란과 무질서를 유도하는 과격 사상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小松隆二, 『日本아나키즘運動史』, 東京: 青木新書, 1972, 23~26쪽).

첫 궤적이 아닐 수 없다.

1907년 당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 세력은 러일전쟁 반대운동을 펼치며 성장한 초기 사회주의 세력과 아나키스트들이었고, 이중 영향력있는 지도자는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였다. 그는 사카이 토시히코(堺利彦)와 함께 1903년 11월 平民社를 설립해 주간 『平民新聞』을 발간하면서 러일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신문 발간사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 ‘평민주의’를, 평등의 복리를 누리기 위해 ‘사회주의’를, 박애의 길로 가기 위해 ‘평화주의’를 주창하였다.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군비와 전쟁은 오늘날의 국가가 자본주의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만든 철의 장벽이며, 대다수의 인류는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조선, 만주와 시베리아를 얻게 된다면 이익을 얻는 집단은 정치가나 자본가계급일 뿐이다. 지위나 자본이 조금도 없는 대다수 노동 인민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³⁾

고토쿠 슈스이를 비롯한 평민사 그룹의 반전운동은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에게 군국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공동 투쟁을 제의해 일정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¹⁴⁾ 이러한 반전운동에 대해 일본 정부는 『평민신문』을 폐간시키는 한편, 1905년 2월 고토쿠 슈스이를 필화 사건으로 체포하여 5개월 동안 투옥시켰다.

옥중에서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접한 후 아나키스트로의 사상 전환을 이룬 고토쿠 슈스이는 1905년 11월 미국으로 출국해 당시 노동조합운동을 이끌고 있던 엠마 골드만(Emma Goldman)의 생디칼리즘에 큰 감명을 받은 후 귀국해 아나키스트가 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1907년 평민사를 재건해 『日刊平民新聞』을 발행한 고토쿠 슈스이는 매주 금요일 강연회를 열어 노동자의 직접행동론을 주창하였다.

특히 고토쿠 슈스이는 저명한 번역가이며 아나키스트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 함께 장지(張繼)·장타이엔(章太炎)·류스페이(劉師培) 등 중국 망명 혁명가들과 자주 교류하며 반전·반제국주의 사상의 선전과 국제적 동지 규합에 힘썼다. 중국 유학생들 중 일부는 1907년경부터 사회주의강습회를 만들고, 아나키즘 잡지인 《衝報》와 《天義》를 발행했다. 8월 31일 중국 유학생들의 주도로 열린 사회주의강습회의 제1차 대회에 강사로 초청된 고토쿠 슈스이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연설하자, 참석한 회원 90여 명의 호응이 컸다고 한다.¹⁵⁾ 이후 강습회는 8차례에 걸쳐 열렸다.

12) 조소앙의 사상형성에 대해 오래 전착해 온 김기승은 1907년 이전 일본인이 쓴 『무정부주의』라는 책을 확인하지 못해 당시 조소앙이 구입한 책이 중국 유학생이며 아나키스트인 張繼가 1903년 상해에서 번역한 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128-129쪽). 하지만 이미 일본인이 번역 또는 저술한 두 권의 『무정부주의』책이 1907년경 출판되었으므로 일본 책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13) 『平民新聞』 제1호(1903.11.15.); 제14호(1904.2.14.).

14) 1904년 3월 1일 고토쿠 슈스이는 「러시아 사회당에게 보내는 글」을 『평민신문』에 발표했다. 이 글은 러시아의 플레야노프가 주도하는 「이스크라」에 실렸다. 그리고 일본 노동자에게 보내는 답장이 같은 달 13일 『평민신문』(제18호)에 「러시아 사회당서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 사건은 일본과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반전동맹을 결성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얼마 후 1904년 8월 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2인터네셔널 제6차 회의에서 일본사회당 대표 가타야마 센과 러시아 사회민주당 대표 플레야노프가 연단에서 악수와 포옹을 나눈다. ‘숙적 러·일’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서로 포옹하는 사진은 이후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반전운동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고토쿠 슈스이는 9월 18일자 『평민신문』(제44호)에 「일·러 사회당의 악수」라는 글을 실어 “이 악수는 실로 세계 사회당 발전 역사에 영원히 대서특필될 중대 사건”이라며 높이 평가하였다(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교류와 연대』, 창비, 2001, 158쪽).

15) 〈社會主義講習會 第一次開會 幸徳秋水君演說稿〉《天義》6, 1907년 9월(고토쿠 슈스이,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교양인,

1907년 4월 고토쿠 슈스이와 오스기 사카에 등은 조선과 중국 및 인도·필리핀·베트남 등의 식민지 유학생들을 규합해 亞洲和親會(또는 東亞同盟會)를 조직하였다. 중국 혁명이 중에는 장지(張繼)·장타이엔(章太炎)·류스페이(劉師培) 등 반쑤원파 혁명가들이,¹⁶⁾ 베트남인으로는 『월남망국사』를 저술한 민족지도자 판보이쩌우(潘佩珠), 그리고 인도·필리핀의 혁명가들이 참여하였다. 이 모임의 실질적인 리더라 할 수 있는 류스페이의 「아주현세론」에 의하면, “인도인 모군과 함께 베트남인 모군, 조선인 모군”이 참석했으며 또한 “조선, 베트남의 도교 유학생과 사회주의를 논하면 모두 즐거이 찬성한다.”고 회고하였다.¹⁷⁾ 특히 당시 도쿄에 망명 중이던 판보이쩌우는 아주화친회 구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亞洲和親會(또는 東亞同盟會) 조직 당시의 조선 동지로 조소앙을 특정해 밝혔다.

“그 다음에는 중화혁명당과 일본평민당 사이에서 분주히 돌아다녀 제일 먼저 **章炳麟 선생, 張繼, 景梅九 등 여러 사람의 호응을 얻어 내었다. 이를 이어 조선의 趙素昂군, 인도의 帶근, 필리핀의 恒근 등이 그들의 동지 수십 명과 같이 함께 해주었다.** 그리고 일본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미야자키 도넨 등 십여 명(오스기와 사카이 두 사람은 일본 사회당의 영수이며 고토쿠 슈스이의 동지이다)이 더욱 동정을 표하였다. 戊申年(1908) 10월에 東亞同盟會를 조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회원이 되었던 潘是漢(나의 별명이다), 鄧子敏, 阮琮林 등 십여 명이었다. 동아동맹회는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모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시 나는 자못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딕 밑줄은 필자 주)¹⁸⁾

章炳麟의 이름으로 작성된 「아주화친회 약장」에 의하면, 이 단체는 “아시아인으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를 제외하고, 민족주의·공화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자를 불문하고 모두 입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의 항에는 매달 한 차례의 정기 모임을 갖고 총본부를 도쿄에 두고, “중국·인도·조선·베트남·필리핀·영국 등에 분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주화친회 회원들은 모임의 책임자를 따로 두지 않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규약을 정하였는데,¹⁹⁾ 이로 보아 아나키즘의 자유연합 사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주화친회 회원들은 인도인회관 등에서 모임을 갖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저지와 아시아 민족의 독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유학생들을 위한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를 마련하고 아시아 민족의 연대를 꾀하였다.²⁰⁾

고토쿠 슈스이와 사카이 도시히코 등은 ‘東京社會主義者有志會’ 명의로 일제의 조선 강제 합병을 강력히

2011, 420~432쪽에서 재인용).

- 16) 張繼는 1903년에 중국 상해에서 『무정부주의』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일본어 자료를 번역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전개한 것이다(玉川信明, 『中國の黒い旗』, 東京: 晶文社, 1981, 46~47쪽).
- 17) 유사복, 「아주현세론」, 『천의』 11·12합본, 1907.11.30.
- 18) 潘佩珠, 『판보이쩌우자서전·자료집』, 성균관대출판부, 2015, 205~206쪽(번역문은 황호덕, 2018 논문에서 재인용). 무신년인 1908년에 조직했다는 판보이쩌우의 기억은 여타 참석자들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1907년의 착오로 여겨진다.
- 19) 「亞洲和親會約章」(湯志均, 「關於亞洲和親會」, 『辛亥革命叢刊』 1, 中國: 中華書局, 1980, 148쪽(조세현, 앞의 책, 67~68쪽에서 재인용).
- 20) 李京錫, 「平民法における階級と民族—亞洲和親會との關聯を中心に」, 『帝國を撃て』, 東京: 論創社, 2005, 106~108쪽.

비판하는 결의문을 신문에 신기도 했다. 즉 1907년 7월 21일 제국주의 반대와 아시아 인민의 연대를 강조하고 조선 합병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大阪平民新聞』과 『社會新聞』에 발표했는데,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자유·독립·자치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제국주의적 방책은 만국 평민 계급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언질에 충실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이 다.²¹⁾ 또한 1908년 한 신문에 “동양제국의 혁명당으로서 국가의 구별 없이 즉각 세계주의, 사회주의의 깃발 아래 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²²⁾

아주화친회의 조직과 활동에 조소앙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그의 일기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1906년 6월부터 한인 유학생 조직인 大韓共修會에서 서기와 평의원을 맡은 그가 각종 학생회 활동과 강연회에 참여한 사실, 오스기 사케에가 “중국·조선·월남·필리핀·인도 등의 동지가 계획해 아주화친회를 설립했다.”는 회고,²³⁾ 판보이찌우가 정확히 조소앙의 이름을 기록한 일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가 한인 유학생들을 대표해 아주화친회 활동에 참여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조소앙의 1907년 11월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1907년 11월 9일(10월 4일 토요일, 맑음)

학교에 갔다 왔다. 오후에 東亞協會의 연설을 가서 들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답장을 올렸다.”²⁴⁾

아주화친회(동아동맹회, 또는 동아협회)는 모임 1년이 못되는 1908년 3월경 일본 경찰의 탄압에 의해 해산되고 만다. 판보이찌우는 동맹회 해산과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東亞同盟會가 성립되어 겨우 다섯달이 지났는데, 동맹회의 구성원이 모두 영국과 프랑스의 혁명당, 조선혁명당, 일본사회당 소속이었으므로 더욱 일본 정부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두 정부도 또한 중용을 해서 동맹회는 마침내 일본 경찰에 의해 해산을 당하고 말았다. 연맹회의 경우는 만청 정부와 프랑스가 함께 일본 정부를 비난하므로 일본이 또한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이 연맹회는 성립된 지 3개월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강권세계에서는 능히 당당하게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의와 공리의 모임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덕 밑줄은 필자 주)²⁵⁾

일본 정부는 1908년 6월 집회 장소에서 붉은 혁명기가 등장한 ‘赤旗사건’을 구실 삼아 사회주의 인사들을 모두 연행해 구속시켰다. 이 사건으로 오스기 사카에와 사카이 토시히코·야마카와 히토시 등 13명이 관리

21) 『大阪平民新聞』 1907년 7월 21일자; 井上清·서동만 옮김, 『일본의 역사』(이론과실천사, 1989), 373쪽.

22) 『高知新聞』 1908년 1월 1일자. 아주화친회의 이러한 아시아 민족연대 정신은 1920년에 이르러 오스기 사카에와 신채호·린빙원(林炳文) 등에 의해 꾸준히 이어져 1928년 6월 1일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 설립의 기초 이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自由聯合新聞』 32號 참조).

23) 大杉榮, 〈事實と解釋〉, 『近代思想』, 1915.11.1.

24) 삼군학회 편, 『素昂先生文集』 下, 햇불사, 1979, 208~209쪽.

25) 潘佩珠, 『판보이찌우자서전·자료집』, 성균관대출판부, 2015, 208~209쪽(번역문은 황호덕, 2018 논문에서 재인용).

항거죄와 치안경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내각도 보수 강경파가 득세하여 더욱 강경한 군국주의 체제로 나아갔다. 급기야 정부는 1910년 5월 평민사를 방문한 일부 청년들이 천황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정황만으로 이들을 전격 검거해 ‘大逆事件’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당시 고향에서 크로포트킨의 『빵의 略取』 번역에 몰두하고 있던 고토쿠 슈스이는 이들의 암살 모의를 사주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고 말았다. 체포 당시 고토쿠 슈스이에게 압수한 물건 중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하얼빈에서 처살한 안중근을 찬양한 한시를 적은 사진이어서 더욱 군국주의자들을 경악케 하였다.²⁶⁾

고토쿠 슈스이를 비롯한 12명은 사형 언도 6일 만인 1911년 1월 24일 전격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천황제 군국주의 세력에 의해 아나키스트들은 날조된 대역사건에 의해 처절하게 희생당해야 했으며, 일본 사회운동은 일시나마 잠복기를 맞고 말았다. 조소앙은 고토쿠 슈스이의 사형 소식을 접한 다음날인 1월 25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은 간략한 소회를 남겼다.

“신문에서 보니 어제 12명의 사회주의자에게 사형을 시켰는데. 幸徳傳次郎과 菅野水加 등이다.”²⁷⁾

일본 정부의 아주화친회 해산 조치와 고토쿠 슈스이 사형집행 등은 조소앙으로 하여금 ‘근대문명국가’로의 일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버리게 하였다. 조소앙은 1910년 일본 제국의 한국 강제병합으로 인해 ‘참담’과 ‘음울’을 겪고 있음을 비탄해 하면서,²⁸⁾ 대한흥학회 명의를 합방 성토문과 尹致昊·金奎植에게 보내는 위임장을 작성해 보내는 저지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²⁹⁾ 합방 반대 집회를 개최하려한 조소앙은 8월 25일 경찰에 체포되어 20여 일간 심문을 받았다. 석방된 후에는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감시하는 형사들의 미행을 감수해야만 했다.³⁰⁾ 이로 인해 그는 강제 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이때 그는 일기에서 자신의 상태를 ‘마음과 정신 파열된 듯’, ‘심리상태 우울’ 등으로 표현했으니, 실로 ‘나라가 망하니 몸도 병든’ 상황이 되었다.³¹⁾

이처럼 망국과 억압, 감시의 상황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없었던 조소앙은 기독교에 입교해 1911년 10월 세례를 받았다. 이후 사서삼경을 비롯해 『성경』과 『석가모니소존』·『쇼펜하우어의 철학』 등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문제에 탐구하여 삶의 방향을 나름대로 정립해 나갔다. 그는 점차 학업에도 적응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12년 7월 명치대학 법학부 과정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³²⁾

26) 〈安重根肖像繪葉書題〉(고토쿠 슈스이·임경화 엮음,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교양인, 2011, 465~466쪽에서 재인용)

27) 『동유약초』 1911년 1월 25일조. 幸徳傳次郎은 幸徳秋水의 본명이며 菅野水加는 그의 부인이며 아나키스트 저술가이다.

28) 『동유약초』 1910년 1월 1일조.

29) 『동유약초』 1910년 8월 21일.

30) 『동유약초』 1910년 6월 6일; 7월 17일; 9월 21일조; 〈回顧〉(『조소앙문집』 하, 166~167쪽).

31) 『동유약초』 1910년 11월 2일조.

32) 조소앙의 1910~1911년 당시의 독서편력에 대하여는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지영사, 2003, 73~96쪽 참조.

Ⅲ. 중국 망명기 한살림 조직과 반제 아시아 연대활동

1. 중국 혁명가들과의 교류와 대동당 결성

조소앙은 1912년 7월 졸업시험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이는 1910년 망국 전후부터 중국으로 망명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망명을 위해서는 먼저 귀국이 필요하며 무직업자에게는 일본 형사의 감시가 더욱 심하니 敎新學校·養正義塾의 교사가 되었다가 이듬해인 1913년 중국 상하이로 밀항하였다.³³⁾ 그의 중국행 계획은 일본 유학시절부터 중국 유학생들이나 중국의 동향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지만, 1911년 일어난 신해혁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소앙의 일기에는 중국 관련 언급이 30여 회 등장하는데, 1911년 신해혁명을 전후에서 25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³⁴⁾ 조소앙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깊었음은 그가 1910년 5월 중국 유학생 주최의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듣고 감동적이었다고 적은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중국 유학생의 연설을 듣고, “국가의 일을 도도하게 말하고, 격렬하게 비분하는 모습이 용출하다.”고 적었다.³⁵⁾

중국 유학생과의 교류는 다이시타오(戴季陶)와의 만남이 특기할 만하다. 그는 1904년부터 일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다이시타오와의 만남과 교류는 조소앙이 중국으로 망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1908년 10월 25일(10월 1일 일요일)

청나라 사람 戴良弼은 18살로 대단한 인재인데 만날 기회가 있었다.

○ 1908년 11월 19일(10월 26일 목요일)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청나라 사람 戴氏의 숙소를 방문했다. 대청소를 실시했다.³⁶⁾

다이시타오는 1909년 귀국해 신문기자로서 신해혁명을 이끌고 쑨원(孫文)의 비서와 통역을 맡아 삼민주의 핵심 이론가로 성장한 인물이다. 그는 국민당 선전부장으로서 일본 식민통치의 잔학상을 비판하고 한국의 독립투쟁을 성원·지지하는 조소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³⁷⁾

1913년 상하이로 간 조소앙은 곧 성균관 동료인 신채호를 비롯해 신규식·박은식·홍명희 등과 만나 同濟社의 간부로 활동하고 博達學院의 교사가 되었다. 이어 다이시타오의 후원 아래 중국 국민당 창설의 주역인 쑹자오런(宋教仁)과 천치메이(陳英士, 일명 陳其美), 국민당 조직부장 천귀푸(陳果夫), 아나키스트 언론인

33) 〈回顧〉(『조소앙문집』 하, 166~167쪽).

34) 황호덕, 「근대 동아시아의 文體·身體·政體, 조소앙의 『동유약초』의 경우」, 『서강인문논총』 4, 2015, 417쪽.

35) 「동유약초」 1910년 5월 22일조.

36) 「동유약초」 1908년 10월 25일; 11월 19일조. 〈연보〉에는 ‘중국혁명가 戴季陶’로 표기하였다.

37) 조덕천, 『1920년대 중한호조사의 결성과 한중연대』,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29쪽.

황궈(黃覺, 이명 黃介民) 등 30여 명을 참여시킨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창립하였다. 이어 조소앙은 동생 용주(鏞周)와 함께 국민당 원로들(張博泉·黃覺·張季鸞·陳果夫)을 만나 ‘아세아민족 반일 대동당’을 조직하였다. 1916년에는 언론인 황궈(黃覺) 등과 함께 大同黨 결성을 추진해 중국과 타이완·인도·태국·베트남·페르시아/이란(波斯) 등 7개국 지식들의 총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³⁸⁾

특히 메이지대학 유학 동지인 황찌에민(黃介民)은 조소앙의 모든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는 신아동제사는 물론 ‘아세아민족 반일 대동당’ 조직 당시에도 발기인으로 나섰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할 때에도 적극 도왔다고 한다. 특히 1915년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중국 유학생들이 일본과 서양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고자 조직된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에서 조직활동을 벌이던 황찌에민은 1917년 1월 조소앙을 서울에서 비밀리에 만나 조선지부를 만들기도 하였다. 황찌에민과 조소앙은 그해 12월 28일 다시 상하이에서 다시 만나 베트남의 응우옌하이탄, 이란의 李石石 등과 회합해 신아동맹당의 본부를 상하이에 두기로 결의하고 반제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신아동맹당의 황찌에민은 1919년 4월 11일 조소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때에도 지지하여 한중연대 활동을 펴는데도 적극 후원하였다.³⁹⁾

2. 한살림 창설과 아나키즘 인식

조소앙은 1914년 1월 세계의 대표적인 성현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일신교’라는 세계 통합적 종교를 제창하였다. ‘六聖教’라고도 부르는 일신교는 단군을 비롯해 공자·석가모니·예수·소크라테스·마호메트 등 여섯 성현의 가르침을 요일별로 하나씩 6일간 반복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六聖一體를 강조한 하나의 종교였다. 그는 이러한 세계 통합적 종교를 통해 개인 인격의 완성과 민족의 독립,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했다.⁴⁰⁾

그는 1919년 3월 조선 각지와 중국 만주, 연해주 일대 등지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에 크게 고무되어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참여해 임시헌법을 기초하였다. 이어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외교특과원 자격으로 1919년 6월부터 1921년 5월까지 유럽 및 소련 여러 지역을 순방하였다. 유럽 방문 동안 그는 한국사회당의 대표 자격으로 8월 1일부터 9일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국제사회당 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승인과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⁴¹⁾ 영국 노동당 인사를 만나 독립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어 덴마크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지를 방문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사회당 명의로 기관지 『赤子報』를 간행하였다.⁴²⁾

38) 〈연보〉(『素昂先生文集』 下, 1979, 488~489쪽).

39) 黃介民과 조소앙 등 한인들과의 친교와 신아동맹당 활동에 대해서는 김경남, 「1910년대 재일 한·중 유학생의 비밀결사활동과 ‘민족혁명’ 기획」, 『지역과역사』 45, 2019; 문미라, 「중국인 독립유공자의 한국독립운동 지원사례분석-황궈, 두권웨이, 쓰투어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7: 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20; 조덕천, 「1920년대 중한호조사의 결성과 한중연대」,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참조.

40)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지영사, 2003, 99~137쪽 참조.

41) 〈萬國社會黨大會에서 韓國獨立 承認〉《독립신문》 1919년 10월 28일자.

42) 유럽과 러시아에서의 조소앙의 외교활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관하여는 김기승, 「조소앙과 『적자보』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

이후 1921년 3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대회를 참관한 그는 8개국 대표 25명의 시찰단과 함께 이르쿠츠크와 치타 등 혁명기에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실상을 목격한 후 만주를 거쳐 북경으로 귀환하였다. 북경에 돌아온 조소앙은 소련 볼셰비키혁명과정에서 드러난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사상을 비판하는 ‘滿洲里선언’을 발표하였다.⁴³⁾

공산주의에 대한 당시 그의 인식은 1922년 5월 『독립신문』에 실린 논설 〈독립당과 공산당의 前途〉에서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계급통치와 세계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공산당의 특징이라며, 식민지하에서는 공산당도 제일차 목적이 독립전쟁이고 그런 연후에 2차목적이 공산전쟁이므로 당장에는 ‘共助協進’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이란 공적 앞에서 벌어지는 만주 독립군과 공산당의 대립·갈등을 한탄하면서 “空文空言에 광호치 말고 계통적 ‘더오리’(이론)과 ‘탁틱’(전략)을 분명히 기초하여 해내의 동지를 散渙缺裂치 않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하였다.⁴⁴⁾

1922년 1월 중국국민당 간부가 된 동지 장지(張繼)의 초청을 받아 상해에 돌아온 조소앙은 그의 소개로 쑨원(孫文)과 면담하기도 하였다. 이어 조소앙은 장지와 황찌에민(黃介民) 등 중국 동지들의 지원을 받아 ‘韓薩任’이라는 아나키즘 성향의 비밀결사를 정식 조직하였다. ‘한살림’은 일명 ‘大同黨’이라 칭하며, 중국·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동지들과 함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 타도와 인류 대동사회 건설’을 지향하였다.⁴⁵⁾

‘한살림’ 조직이 정확히 언제 창립되었으며 주도멤버들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벌였으며 언제 코민테른에 가입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코민테른에서 1920년 11월 28일자로 한살림당의 코민테른 가입을 승인했다는 문서가 발견된 것⁴⁶⁾으로 보아 조소앙이 소련 모스크바의 공산당대회 참관 이전에 이미 조직하여 가입 신청을 했음이 확실해 보인다. 한살림당 멤버로는 1923년 1월 서울에 잠입해 일본 경찰과 혈전을 벌이다 장렬히 자결한 김상옥(金相玉) 지사가 참여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1925년 상해에서 조소앙에 의해 간행된 『金相玉傳』과 그의 열전에 한살림과의 관계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소앙은 1922년 5월 김상옥이 한살림당에 스스로 들어왔고, 기독교도였던 그가 아나키즘 등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여 수개월 후 품은 바가 다른 사람이 감히 엿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조소앙은 김상옥을 일본 메이지대학 유학 동지이자 아나키스트인 황찌에민(본명 黃覺)에게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人類平等·世界大同을 함께 실천하자고 약속했다.”고 한다. 황찌에민은 서문에서

논총』 39, 2020; 김기승, 「조소앙의 사회주의 수용과 공화주의 국가구상」(김현철 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조명2』, 동북아역사재단, 2020) 등을 참조.

43) 1921년 10월경 북경으로 돌아온 조소앙을 의열단 간부인 류자명과 정화암이 만났는데, 그들에게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상해파와 이르쿠츠크 한인공산당 간의 암투가 치열하다는 의견을 전해 주었다고 한다. 조소앙의 권유에 따라 정화암과 이을규·정규 형제는 러시아공산당에 입당원서를 쓰고 입국수속까지 마쳤다가 러시아행을 포기했다(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것인가』, 자유문고, 1982, 33~34쪽).

44) 『독립신문』 1922년 5월 6일자.

45) 〈연보〉(『素昂先生文集』 下, 1979, 488~492쪽).

46) 〈한살림당의 코민테른 가입조건에 대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결정(1920.11.28.)〉(엄순천, 『러시아문서번역집 20』, 도서출판 선인, 2015, 26쪽).

김상옥의 투쟁을 안중근의 의거에 비유하였다.⁴⁷⁾

조소앙이 ‘韓薩任’이라는 필명으로 저술하고 발행한 「韓薩任要領」에는 이 단체의 강령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살림요령」은 제1장 ‘본의’, 제2장 ‘강목’, 제3장 ‘당규’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본의’에서 “韓薩任은 民主獨立 곧 光復韓을 가지고 제1단계로 하고 빈주공생(貧主公生) 곧 계급혁명을 가지고 제2단계로 하며, 무치(無治) 곧 부원(府院)을 이탈함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목’에서는 3단계의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독립전쟁이 필요하고 이에 30년, 제2단계에서는 계급전쟁이 필요하고 이에 50년이 걸린다. 나아가 제3단계의 세계한살림(世界韓薩任)을 대비하여 우선 전 아시아에서 사산(私產)을 제거하여 공유(公有)로 돌아가게 하며 방국(邦國)을 일가(一家)로 바꾸고 아시아한살림(亞細亞韓薩任)을 조직하여 천하 진전시킨다. 천하에서 한살림(韓薩任)이 완성되면 즉 전쟁을 없앨 수가 있고 부원(府院)을 없앨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무치(無治)로 돌아간다. 이를 극락세계라 한다.”

나아가 7가지 실천 강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불소찬(不素餐, 남녀빈천 구애없이 능력을 발휘함), 둘째 무사권(無私權, 상속과 겸병, 사유특권을 없앴), 셋째 이성동권(異姓同權, 남녀가 권리·의무를 균등히 함), 넷째 자강대(自強隊, 노동자의 무장 훈련), 다섯째 비전쟁(非戰爭, 독립전과 자위전 이외의 전쟁을 금할 것), 여섯째 민족연맹(民族聯盟, 각 민족과의 연맹과 대동화합)이다. 일곱 번째 세계한살림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평등하게 되고 국가와 국가가 균등하게 된 후에 평화를 달성시킬 수 있다. 평화스럽고 안정되면 저절로 세계한살림의 무치(無治)가 완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계급 없고 국가도 소멸된 무계급 평등사회인 ‘세계 한살림’을 이상사회로 여겼다. 즉 아나키즘과 도교·노장사상에서 지향한 권력 없는 ‘대동사회’의 건설을 최종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⁴⁸⁾

또한 한살림당의 조직은 크게 당 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이원체제로 구상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문사부와 무사부로 나뉘는데, 무사부는 군사와 전략 문제뿐 아니라 전쟁·암살·파괴·습격·약탈·정탐·파업 등 투쟁방법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⁹⁾ 독립전쟁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력투쟁도 감수하는 혁명단체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전반기에 조소앙은 중국 아나키스트들과의 적극적 협력과 비밀결사인 ‘한살림’ 조직을 통해 아나키즘적 대동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어 조소앙은 서구 아나키즘을 비판하게 되었다. 그는 “혹자는 말하되 ‘일체 인류의 공통된 지망이 평등지위 자유세계가 아니냐, 모든 억압적 공구를 모조리 박멸하기에 바쁜 우리는 또다시 새로 억압하려는 야성열근(野性劣根)을 뽑아버리자. 결코 정부나 국가나 기타 기관의 공구 즉 통치적 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류의 머리 위에 다시 세우지 말자’고 한다. 이폭역폭(以暴易暴)의 악례를 인습하지 말자고도 한다.”면서 서구 아나키스트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47) 〈열사 김상옥전〉(『素昂先生文集』上, 1979, 443~448쪽).

48) 韓薩任, 『김상옥전』, 삼일인서관, 1925(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조소앙편1』, 1995, 3~27쪽)

49) 〈韓薩任要領〉(『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조소앙편1』, 1995, 22~27쪽).

“그러나 현대 인류로서는 통치기관을 상대적으로 부인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 일 민족의 위에 서 있는, 또한 일 계급 위에 있는 통치기관은 전복할 것이나 그네들의 수중에서 창조된 새로운 통치기관은 옹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계급 대 타계급, 일민족대 타 민족의 관계도 이와 같다. 이유를 말하자면, 통치기관의 재건설 없이는 구통치계급의 권토중래를 방지할 수 없다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신세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이것이 혁명의 모순성이다.”⁵⁰⁾

이처럼 조소앙은 아나키즘적 이상사회를 전망하면서도 이상의 실현과 자율국가 수호를 위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통치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한 후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할 민족혁명 과정에서 자율적 국가권력의 건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강도의 장품(贓品)을 회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무장으로 적의 무장을 해제하는 동시에 적의 점령한 일체를 회수하되, 우리의 무장은 적의 재습(再襲)을 방지하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자수(自手)로써 무장해제를 감수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로서 다시 강도가 되어 인류에게 범행하지는 본의가 아니고 오직 회수한 물건을 영구하고도 완전히 보장하지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라는 무장에서 정부라는 군계(軍械)를 방수(放手)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이것이다.”⁵¹⁾

이처럼 새로운 국가의 건설은 또 다른 강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자는 것이며, 또 다른 강도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라는 자율적 통치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조소앙의 이러한 논리는 아나키스트가 봉건왕국과 제국주의와 같은 타율정부(他律政府)를 배격할 뿐, 민중에 의해 이끌어지는 자율정부(自律政府)를 배격하는 자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아나키스트 유림(柳림)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⁵²⁾ 따라서 ‘3.1혁명에서 태어난 전 민족의 자율적 기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가 청년시절부터 꿈꿨던 대동적 이상사회를 실현할 새로운 통치기관이기에 삼균주의라는 사상으로 이론과 실천과제의 체계화에 힘썼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50) <각국혁명운동사요> 『소앙선생문집』 상, 110~111쪽.

51) <각국혁명운동사요> 『소앙선생문집』 상, 111~112쪽.

52) 유림은 아나키즘이 무정부가 아닌 무강권을 추구하는 사상이기에 “아나키스트는 강제권력을 배격하는 것이지 자율정부를 배격하는 자가 아니다”라며, 임시정부는 “3.1운동에서 탄생한 전 민족의 자율적 기관”이기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국무위원 柳林씨의 문답> 《조선일보》 1945년 12월 7일;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사, 1978, 1~3쪽).

IV. 맺음말

1904년 10월 일본 도쿄로 유학길에 오른 조소앙은 반전운동이 고조되고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강제퇴위당한 1907년 기점으로 문명국가로의 일본관을 바꾸게 되었다. 세계 인권문제와 반전 평화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조소앙은 처음 아나키즘 서적을 구입해 탐독한 후 일본 사회주의자와 중국 유학생 강연회 등에 참석하며 아시아 연대활동에 참여했다.

조소앙의 반일 아시아 연대활동은 1907년 일본 도쿄에서 조직된 최초의 아시아 반제동맹인 亞洲和親會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아주화친회 조직에 앞장선 고토쿠 슈스이와 오스기 사카 등 일본 아나키스트들과 중국의 혁명가 장지·류스페이, 그리고 베트남의 혁명가 판보이쩌우 등의 회고에서 그가 조선혁명당의 한사람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침략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아시아인’을 회원으로 한 아주화친회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발표하는 등 반제 아시아 연대활동을 펼쳤지만, 5개월만에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이후 고토쿠 슈스이가 ‘대역사건’의 희생양이 되며 일본 사회운동이 침체에 빠졌고, 조소앙은 강제합병과 경찰 감시로 우울과 병든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912년 7월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조소앙은 중국혁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혁명가들의 항일 지원을 받기 위해 귀국한 지 1년 만에 중국으로 망명했다. 일본 유학 동문이자 아나키스트 동지로서 중국 국민당의 핵심인물이 된 다이시타오와 황찌에민 등은 조소앙의 모든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들은 신아동계사는 물론 ‘아세아민족 반일 대동당’ 조직에도 발기인으로 나섰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할 때에도 적극 도왔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임시헌법을 기초하는 등 크게 기여한 조소앙은 한국독립의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해 5월부터 1921년 5월까지 유럽과 소련 여러 지역을 순방하였다. 유럽 방문 동안 그는 한국사회당의 대표 자격으로 국제사회당 대회에 참석해 정부 승인과 독립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 각국 인사에게 독립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어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대회를 참관한 그는 러시아의 실상을 목격한 후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언문 발표하였다.

공산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조소앙은 중국 동지들의 지원을 받아 ‘한살림’이라는 아나키즘 성향의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한살림’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동지들과 함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 타도와 인류 대동사회 건설’을 지향하였다. ‘한살림당’이 언제 누구에 의해 창립되었는지는 향후 더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코민테른에서 1920년 11월 28일자로 가입 승인을 했다는 문서로 보아 모스크바의 공산당 대회 참관 이전에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독립전쟁의 수행을 위해 무력투쟁도 감수하는 혁명단체를 지향했다.

이처럼 1920년대에 조소앙은 중국 아나키스트들과의 협력과 비밀결사로 아나키즘적 대동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어 조소앙은 ‘국가의 소멸’을 주장하는 서구 아나키즘의 논리를 비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의 건설은 또 다른 강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자는 것이며,

또 다른 강도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라는 자율적 통치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소앙의 이러한 논리는 아나키스트가 봉건왕국이나 제국주의와 같은 타율정부(他律政府)를 배격할 뿐 민중에 의해 이끌어지는 자율정부(自律政府)를 배격하는 자가 아니라는 유림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들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3.1혁명에서 태어난 전 민족의 자율적 기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가 청년 시절부터 꿈꿨던 대동적 이상사회를 실현할 새로운 통치기관이기에 삼균주의라는 사상으로 이론과 실천과제의 체계화에 힘썼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平民新聞』, 『獨立新聞』

大杉榮, 『近代思想』, 1915.

삼균학회 편, 『素昂先生文集』 上·下, 햇불사,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조소앙편1』, 1995.

潘佩珠, 『판보이찌우자서전·자료집』, 성균관대출판부, 2015.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 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지영사, 2003.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김명섭,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이학사, 2008.

고토쿠 슈스이·임경화,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교양인, 2011.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교류와 연대』, 창비, 2001.

조지 우드코크(저), 하기락(역), 『아나키즘 - 사상』, 형설출판사, 1975.

小松隆二, 『日本아나키즘運動史』, 東京: 青木新書, 1972.

玉川信明, 『中國の黒い旗』, 東京: 晶文社, 1981.

김경남, 「1910년대 재일 한·중 유학생의 비밀결사활동과 '민족혁명' 기획」, 『지역과역사』 45, 2019.

김기승, 「조소앙과 『적자보』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 2020.

김기승, 「조소앙의 사회주의 수용과 공화주의 국가구상」(김현철 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조명 2』, 동북아역사재단, 2020).

문미라, 「중국인 독립유공자의 한국독립운동 지원사례분석 - 황취, 두권휘어, 쓰투어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7: 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20.

삿사 미즈아키, 「조소앙의 대동사상과 아나키즘-육성교의 구상과 한 살임의 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40, 2016.

황호덕, 「근대 동아시아의 文體·身體·政體, 조소앙의 『동유약초』의 경우-일본 유학, 망국, 중국 망명의 지적·문체적 여정」, 『서강인문논총』 4, 2015.

황호덕, 「근대한문, 東亞同盟과 혁명의 문자-『판보이찌우자서전(潘佩珠年表)으로 본 아시아혁명의 원천들』 『대동문화연구』 104, 2018.

* 이 논문은 2021년 5월 27일에 투고되어,
2021년 6월 1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7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Cho So-ang's Anarchism Accept and Anti-Japanese Solidarity in Asia

Kim, Myungseob*

Cho So-ang, who started studying in Tokyo in October 1904, changed his view of Japan to a civilized country in 1907. Cho So-ang, who became interested in global human rights issues and anti-war peace movements, first bought and read Anarchism books, attended lectures by Japanese socialists and Chinese students and participated in Asian solidarity activities.

Cho So-ang's anti-Japanese solidarity began in earnest in 1907 when he participated in the Aju Hua Chinhoe(亞洲和親會), the first Asian anti-Japanese alliance organized in Tokyo, Japan. The Aju Hua Chinhoe conducted anti-Japanese Asian solidarity activities by issuing a statement strongly criticizing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the newspaper, but was forcibly dissolv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five months. Cho So-ang, who graduated from Meiji University in July 1912, was very interested in the Chinese Revolution and defected to China a year after returning to Korea to receive anti-Japanese support from revolutionaries. Chinese comrades, who have become key figures of the Chinese People's Party as alumni of studying in Japan and anarchists, have helped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in all activities.

Cho So-ang, wh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pril 11, 1919, toured various parts of Europe and the Soviet Union from May that year to draw international support for Korea's independence. During his visit to Europe, he attended international party conferences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Socialist Party, drawing government approval and support for independence, and appealing to figures from each country for independence support. After attending the Communist Party Congress in Moscow, the Soviet Union, he issued a declaration pointing to the problems of communism.

Cho So-ang organized an anarchist secret association called 'Party of Daedong'(大同黨) with the support of Chinese comrades. 'Party of Daedong' aimed to overthrow imperialism and build a society of humanity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Asian comrades such as China, India, and Vietnam.

[Keywords] Aju Hua Chinhoe, Cho So-ang, Anarchism, Party of Daedong, Korea Independent

* Dankook University